

탄소 가격 상승에 대한 탄력성: Eurozone S&P PACT 지수는 어려움을 견뎌낼까요?



Barbara Vela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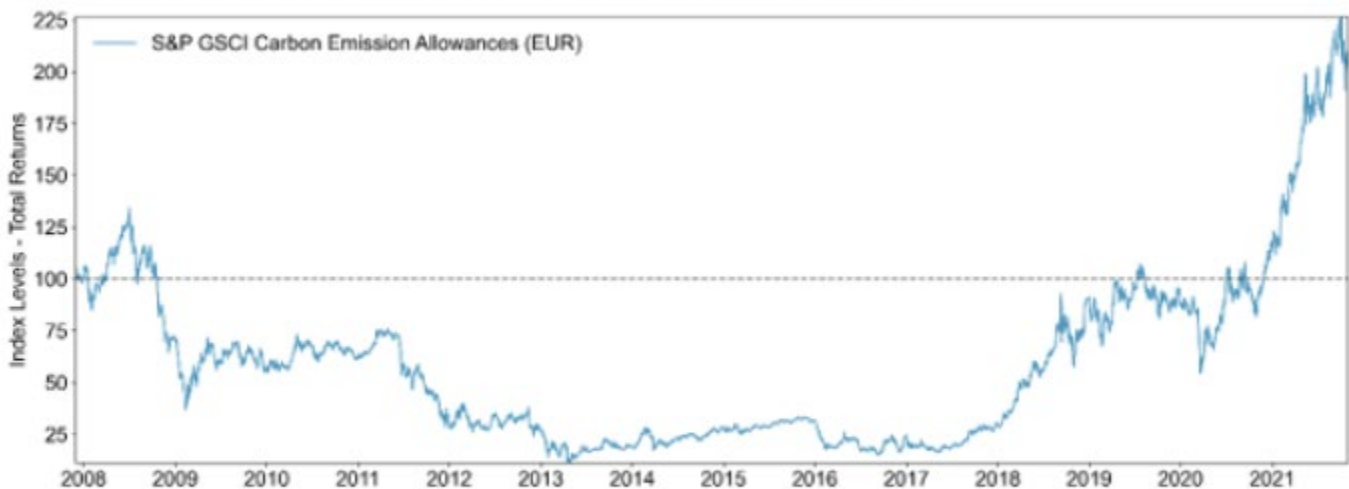
Analyst, Research & Design, ESG Indices
S&P Dow Jones Indices

English : <https://www.indexologyblog.com/2021/11/22/resilience-to-rising-carbon-prices-do-eurozone-sp-pact-indices-stand-the-test/>

“인류에 대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 UN은 기후변화의 임박한 영향을 이렇게 서술했습니다.¹ 인간이 유발한 지구 온난화는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1°C 높으며 2100년에는 2.7°C 이상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² 세계가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고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려면 탈탄소화가 답입니다. [S&P PACT™ 지수\(S&P Paris-Aligned & Climate Transition 지수\)](#)는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탄소 가격은 기업이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줄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탄소 가격 상승은 1년 새 126.58%나 급등한 [EU 배출권 거래제도](#) 내에서 관찰되었습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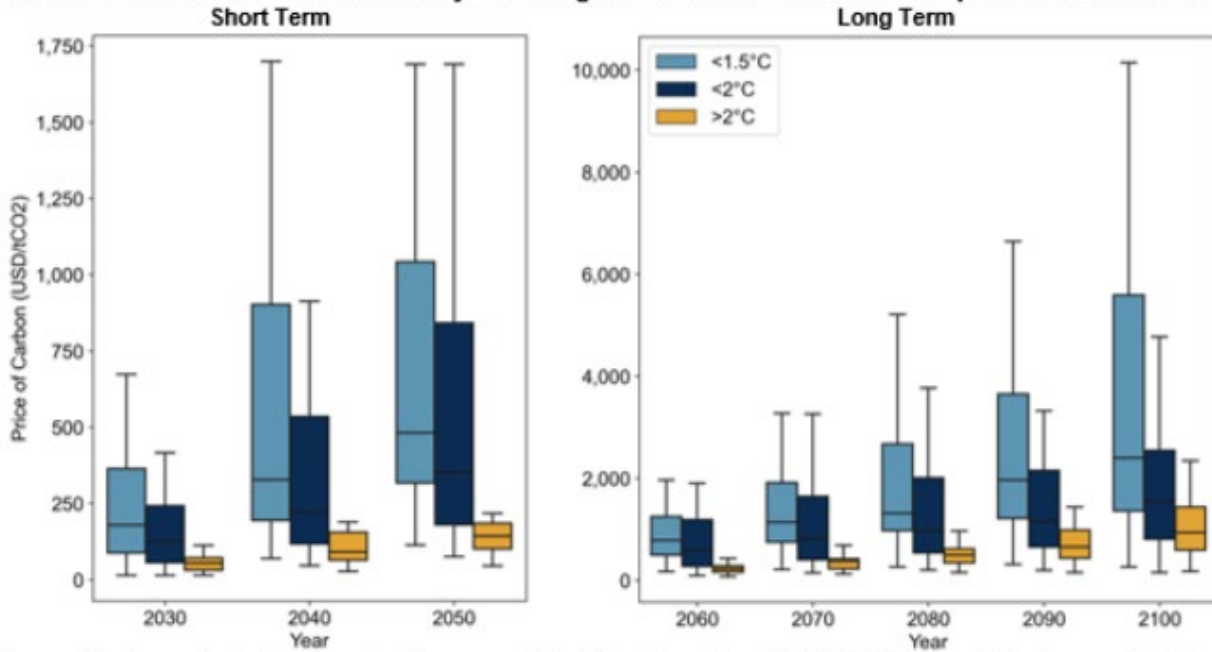
Exhibit 1: S&P GSCI Carbon Emissions Allowances Performance



Source: S&P Dow Jones Indices LLC. Data as of Sept. 30, 2021. Index performance based on total return in EUR. Past performance is no guarantee of future results. Chart is provided for illustrative purposes and reflects hypothetical historical performance. The S&P GSCI Carbon Emissions Allowances was launched March 9, 2020.

지구 온난화를 1.5°C까지 억제하기 위해 탄소 가격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극적으로 상승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목표치를 2°C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가격 상승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큼니다. 당연히 기업은 탄소배출에 따른 추가 비용을 흡수하거나 이른바 탄소 가격 프리미엄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해야 하는 잠재적 재무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Exhibit 2: Carbon Price Uncertainty and Magnitude under Different Temperature Scenari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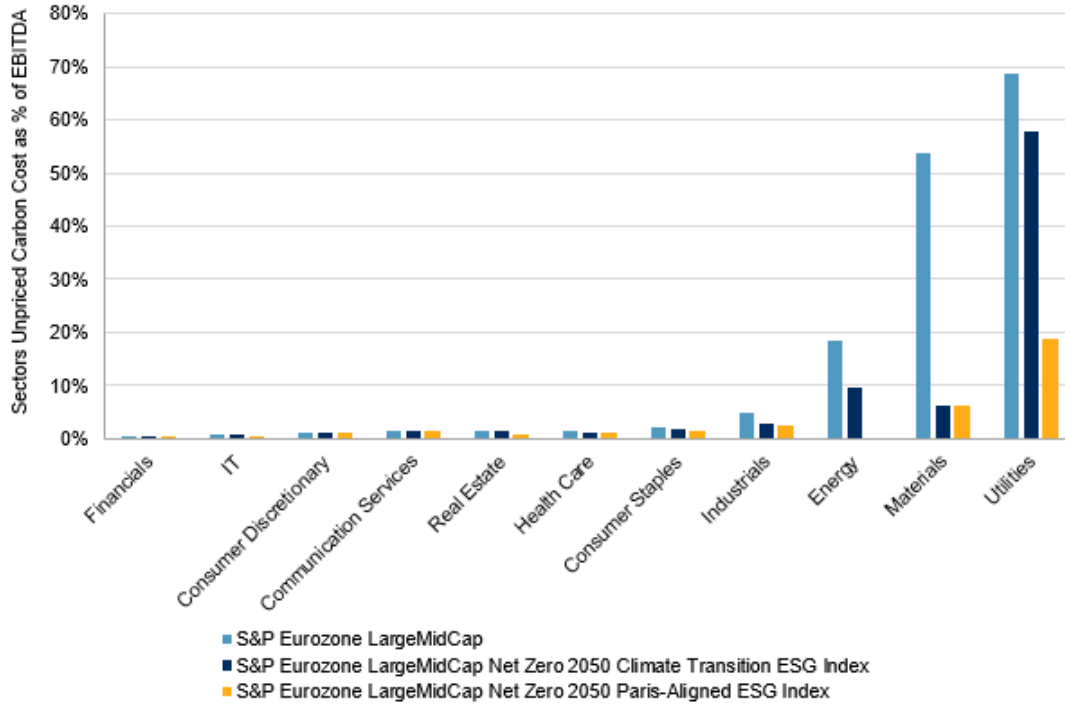
Source: Chart recreated using Integrated Assessment Modeling Consortium (IAMC) 1.5°C Scenario Explorer and Data hosted by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Analysis (IIASA). Data as of 2018. Charts are provided for illustrative purposes.

[S&P Global Trucost의 탄소 수익 최소손실가능액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유로존 S&P PACT 지수가 탄소 가격 상승에 대해 더 많은 재정적 탄력성을 보이는지, 아니면 벤치마크 대비 포트폴리오 수익의 더 낮은 최대손실가능액이 관찰되는지 여부를 테스트합니다. Trucost는 다음 세 가지 탄소 가격 경로를 개발했습니다.

1. 국가들의 [NDC](#)⁴를 반영한 저탄소 가격
2. 2°C 목표를 가정한 중간 탄소 가격, 하지만 단기 조치 지연
3. 파리협정의 2°C 목표에 부합하는 높은 탄소 가격

업종들은 이러한 전환 위험에 대한 노출도가 서로 다른데, 유틸리티 및 소재 업종은 운영 특성을 감안할 때 치솟는 탄소 가격에 가장 취약합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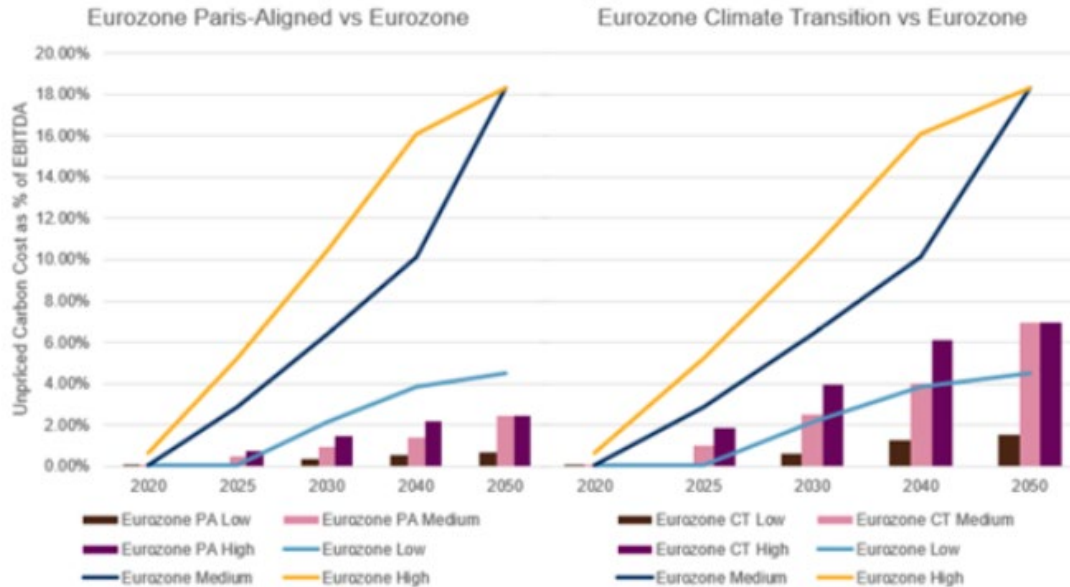
Exhibit 3: Sectors Unpriced Carbon Cost as a Percentage of EBITDA – High Carbon Price 2030 Scenario



당사는 잠재적인 탄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유로존 S&P PACT 지수 수익의 최대손실가능액을 EBITDA(이자비용, 세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차감 전 이익)의 백분율로 조사합니다. S&P Paris-Aligned(PA) 지수와 S&P Climate Transition(CT) 지수가 거둘 수 있는 탄소수익의 최대손실가능액은 2020년부터 2050년까지 각 시나리오에서 기초 S&P Eurozone LargeMidCap 지수보다 낮았습니다.

세계가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고 높은 탄소 가격을 채택한다면(짙은 자주색 막대와 노란색 선으로 표시), 이는 PA와 CT 지수 모두 2030년까지 포트폴리오 수익의 최대손실가능액이 각각 8.99%와 6.50%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⁶ 2050년에는 15.86%와 11.36%로 증가합니다.

Exhibit 4: The Eurozone S&P PACT Indices versus S&P Eurozone LargeMidCap Unpriced Carbon Cost as a Percentage of EBITDA under High, Medium, and Low Carbon Price Pathways



Source: S&P Dow Jones Indices LLC. Data as of Sept. 30, 2021. Charts are provided for illustrative purposes.

Trucost 모델은 유로존 S&P PACT 지수가 기초 시가총액 가중 지수보다 미래 지향적인 기준에서 재정적으로 더 견고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잠재적인 기후 복원력의 강도는 세계가 추구하게 될 특정 기후 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워킹그룹 1의 물리학 기반 여섯 번째 평가 보고서에 담긴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발언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Based IPCC AR6 보고서: [Climate Change 2021: 물리학 기반](#)에 대한 워킹그룹 1의 기여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제출된 NDC(국가자발적기여) 및 공약에 기반할 경우 세계는 2.7°C의 온난화 궤적을 따르고 있습니다.

3 2021년 9월 30일 현재.

4 NDC는 국가들이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형성합니다. 여기에는 국가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목표, 정책, 조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UNFCCC, 2021).

5 Trucost의 탄소 수익 최대손실가능액 데이터 세트에는 GHG 배출의 범위 1 및 2만 포함됩니다.

6 모든 데이터는 2021년 9월 1일 현재.

이 블로그의 게시물은 조언이 아닌 의견입니다. 당사의 [면책사항](#)을 읽어십시오.